

109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4)
주제: 고통을 통감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다

채동걸(蔡東杰) 교수
(중흥대학교 정치법학대학원)

제 4 차 유라시아재단 국제세미나는 중흥대학교 정치법학대학원 학장이신 채동걸(蔡東杰) 교수를 강사로 모셨다. 먼저 채동걸 원장은 중흥대학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의 경비로 추진한 3년 간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아시아 공동체는 현재까지 하나의 관념이나 슬로건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성과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여전히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FTA 체결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및 현재 코로나 COVID-19의 팬데믹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행사가 모두 중단된 관계로 국제협력의 미래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 Asia는 ‘동방’이라는 그리스어이다. 아시아의 면적은 전세계의 30% 가량을 차지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며, 전세계 인구의 2/3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고, 3대 고대문명의 발원지인 인더스강(印度河)과 황하강(黃河)이 속한 곳이다. 아시아에는 43개국과 1,00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고, 현재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발원하였다.

다음으로 아시아 통합의 동력이다. 20세기말 동아시아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일본의 기적 외에도 네 마리 용의 기적, 새로운 네 마리의 용의 기적, 슈퍼차이나(中國崛起) 등의 발전을 이루었다. 2008년 금융 쓰나미 이후, 전세계는 금융위기에 들어섰다. 동아시아는 금융위기 시기에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67년에 창설된 ASEAN(東協)은 동아시아 협력 모델이 되었다. 즉, ASEAN Plus One으로서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인도 등이 ASEAN(東協)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FDI)의 1순위가 됐고 최근 10년 간은 역외투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북미-서유럽 통합이 이루어졌다.

아시아 통합의 전환점으로 APEC을 들 수 있다. APEC은 1989년에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하였다. APEC은 대만이 참가한 가장 중요한 국제지역기구로,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라틴 아메리카가 포함되어 있다. 1993년 APEC은 변신을 시도하여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제 1회 정상회의는 시애틀에서 열렸으며 FTA(다자간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 설립이었다. 2000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버전의

아시아 공동체 개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5 년 동아시아 제 1 차 정상회의(EAS)가 열렸다. 이 회의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를 대표해 의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APEC 과는 달리 미국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2011 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확대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가입했다. 이어 2015 년에는 ASEAN(東協)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2016 년 미국 TPP, 2018 년 일본 CPTPT, 중국의 RCEP 가 설립되었다.

아시아 통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먼저, 주권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협력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이 아직 경제협력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며 자신감과 효과의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아시아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채 원장은 민족 간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답했다. 민족이란 집단 연속성의 공통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러한 기억이 모여 공동체의식을 결정한다. 둘째, 종교적 화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음은 실크로드의 개념이다. 과거 실크로드라는 무역경로는 아시아 전체를 아울렀지만, 유럽의 해양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아시아 실크로드는 끝이 났다. 하지만 뉴실크로드라는 지정학적 의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통이다. 소통을 해야 서로 공감대가 있고, 공감대가 있어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고 교통, 통신기술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한편 채원장은 전 세계에 각기 다른 실크로드의 제의가 있었다고 했다. 일본은 1989 년에 가장 먼저 실크로드 외교를 건의했으며, 2008 년 유엔도 이를 제의하면서 각국을 도와 난국을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2009 년에는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신아시아구상(新亞洲構想)」안을 제의하였고 유럽연합도 「중앙아시아 새로운 동반관계(中亞新夥伴關係)」를 발표하였다. 2011 년 미국의 힐러리는 「신실크로드계획(新絲綢之路計畫)」을,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맹 건의안(歐亞經濟聯盟倡議)」을, 중국은 2013 년에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에 대해 채 원장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였다. 특히 지금은 COVID-19 의 출현으로 과거에 국가 간 왕래가 잦았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는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 (1)지역주의에서부터 세부노선이 믿음을 확고히 함.
- (2)동서양의 축을 뒤집을 기회와 도전
- (3)경제부터 군사,정치,문화의 발전
- (4)지역주의와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기초

번역: 주희선(朱希鮮)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